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박차

'2021년도 고령친화도시'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재인증 추진

나주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환경 제공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 이화실에서 정찬균 부시장 주재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별 실행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는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시를 뜻한다.

이번 보고회는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에 따라 이행 중인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개년(2020-2022년) 실행계획' 점검의 일환으로 2020년 추진 실적 점검과 올해 추진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나주시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100세 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3대 목표인 '사회적 참여와 활발한 노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존중과 통합'에 기반한 55개 부서별 실행과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2년차를 맞아 일자리, 지역사회 활동 참여, 보건·복지, 안전, 교

통서비스, 주거 분야 맞춤형 고령친화 정책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생활체육 시설 개·보수 및 확충,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강화, 독거노인 공영 장례 서비스 도입, 저상버스 운행 확대, 주거약자에 집수리 지원 및 주거급여 지원 등을 추진한다.

2022년 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멤버십 재인증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령사회 정책의 국제적 정보, 정책 공유의 장이다. 나주시는 2019년 전라남도 최초이자 전국 지자체 중 12번째 회원 도시로 가입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골프대회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논란

이승욱 군수 등 접촉자 격리... '왜 하필 이때' 비난 목소리 거세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해가는 가운데 강진군이 개최한 '2021 청자배 골프대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강진 다산배아 체CC에서 열린 2021 청자배 골프대회는 군민 등 180여명이 출전했다. 인사차 참석한 이승욱 강진군수를 비롯해 차영수 전남도의원, 강진군 체육회 임원 등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하는 등 한때 소동이 발생했다.

골프대회에 참가한 강진 출신 광주 거주 한 선수가 지난 21일 증상 발현 후 다음날 확진 판정(광주 2339번)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광주 2339번이 강진 골프대회 참가 사실을 확인하고 강진군에 통보했으며, 군은 이 군수를 비롯한 대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 대회 참가자와 골프장 관계자 등 1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 지역사회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다.

다행인 것은 검사대상자 27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결과로 볼 때 출항 인사인(광주 2339번) 확진자는 대회 당일인 18일 이후 광주에서 발생(21일)했을 가능성이 더 무거게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연초에 계획을 추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최식도 안 하고 티오프 시간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한적으로 대회를 치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하필 이 와중에 대회를 치러야 했느냐"며 군과 대회 주최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에도 9월 '청자배' 12월 '생활체육동우회배' 등 전, 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68팀이 대회를 치렀고, 강진군이 이전대회에 해마다 1700만원을 체육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역민을 하는 한 주민은 "최근 광주-전남이 코로나 확산에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군 당국은 대규모 행사인 골프대회 일정하나 조정 못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며 "결국 군 이미지만 실추시킨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 죽녹원 죽순 불법 채취 단속 나선다



담양군이 죽녹원 대숲을 보호하기 위해 죽순 불법 채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죽녹원 죽순.

<담양군 제공>

6월까지 '죽순지킴이' 운영

담양군이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대숲을 보호하기 위해 죽순 불법 채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담양군은 죽순 채취로 인한 대나무숲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때 이른 더위로 평년보다 죽순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을 감안,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채취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죽순지킴이는 모두 4개조로 편성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 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

객 안내활동을 함께 하며, '대한민국 관광 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릴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죽순 보호를 통해 죽녹원의 아름다운 대숲 보존에 힘쓸 것"이라며 "불법 채취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항암치료제 개발 박셀바이오, 화순에 중앙연구소 건립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기업인 박셀바이오(공동대표 이준행·이재중)가 화순에 중앙연구소를 건립한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박셀바이오는 최근 화순 백신산업특구 생물약산업단지 내 1만3352㎡ 규모의 공장 용지 분양계약을 화순군과 맺었다.

박셀바이오는 2023년까지 생물약산업단지에 첨단 연구 설비, 면역치료제 스마트 생산시설을 갖춘 중앙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중앙연구소를 완공하면 기초 연구부터 임상 설계, 임상 시험, 치료제 대량 생산, 품질관리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항암 면역치료제 생태계'를 완성하게 된다.

박셀바이오는 치료제 연구 후 제품 생산과 임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다른 바이오 기업과 달리 창업 초기인 2012년부터 기초 연구에서 치료제 생산에 이르는 일괄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체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준공

어류 부산물·표고버섯 활용

연 매출 240억원 기대

장흥군이 가공 후 버려지는 어류 부산물과 장흥 표고버섯을 활용한 1만 규모의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사진)을 준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에 따른 수산자원 남획 방지 및 양식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공장 규모는 연면적 2553㎡(772평)로 국·군비 보조금 32억원과 자부담 33억원 등 총 65억원이 투자됐다. 연간 예상 매출액은 240억원으로 예상돼 장흥의 대표적인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그동안 수입 어분에 100% 의존하던 배합사료 배합 공사를 국내산으로 대체해 국내 내수면 양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양식 어가들이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된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인재육성 사업 대폭 확대

장성장학회, 장학생 147명 선발

장학금 1억5580만원 지원

장성군이 선조들이 이룩한 '문불여장성(女不長城) 학문에 있어 장성만한 곳이 없다'의 업적을 잇기 위해 인재육성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26일 장성군(재)장성장학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회 이사회에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 변경안'과 '장학생 선발안' 등을 의결했다.

장성장학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올해 장학생을 전년보다 59명 늘어난 총 147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장학금 지원금액도 6740만원 증액해 1억 558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첫 장학금 지급은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 재산도 63억원에서 72억원으로 9억원 가량 늘어났다. 장학회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학회 이사이자 필암서원 교육을 관장하는 도유사(都宥司) 김성수씨는 후진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2년 연속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